OJT 후기

미디어학과 권보선

최근 국내 취업이 어려워 해외 취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여러 국제 인턴십을 지원해주거나 외부 인턴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본은 현재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일본의 회사들은 일본 국내에서 벗어나 외국 노동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고급 인재가 많은 한국과 중국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IT업계는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많이 뽑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OJT도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인턴십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OJT를 갔다 온 후배가 OJT를 추천해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취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관광이 아닌 직장으로서 일본이 어떠한 지 궁금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턴 경험이 없던 터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일본 취업이 마냥 장밋빛이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러모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OJT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JLPT N2를 취득하였고 비즈니스 일본어를 익혔습니다.

# 회사에 대하여

일본에 가기 전에 회사에 대해 알아봤지만 사이트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다이코 그룹의 BS사업부라는 것과 IT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이 의문은 회사에 직접 가서야 풀렸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은 다이코 그룹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태가 된 기업에서 자회사가 여러 생겼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기업은 자동차 설계에서 시작했고 설계 매뉴얼 제작, 특허 업무, IT 등 업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 회사는 다이코 IWS라는 IT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기존의 다이코 BS사업부는 2017년 7월에 다이코 IWS로 분사하여 독립하였습니다. 기존 인턴십 일정은 15일부터 18일까지였으나 회사의 이전 문제로 16일로 미뤄졌는데 회사가 확장되면서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자회사로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이트가 새로 생긴 지 몰랐습니다.

제가 연수를 받은 곳은 다이코 IWS입니다. 다이코 IWS는 고객에게 IT솔루션을 제공하고 D-Tech Farm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D-TECH FARM은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인재를 뽑아서 일정 프로세스를 걸쳐 회사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OJT도 인재 양성에 일환으로 아주대와 협력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언어기술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 잡일만 하고 대우를 못 받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인턴십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배우는 것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기술이라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와타나베씨가 갑자기 그림을 보고 말로 설명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뭔가 싶었지만 열심히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본어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면 한국어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설명을 들어도 그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렸던 연수생들도 어려워했고 같은 설명을 들었지만 각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연습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설명은 같아도 상대방 입장에선 각기 가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언어기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기술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충분한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것, 둘째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 마지막 세번째는 논리적인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세번째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은 처음엔 전체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나가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여도 전체적인 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사람들마다 중구난방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지 잘 설명하면 좋은 언어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기술을 배우고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설명하고 그리는 연습을 하니 점점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프로그래밍

다이코 IWS의 주업무는 IT솔루션입니다. 고객이 요구한 IT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선 프로그래밍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과제에 앞서 야스다씨가 파이썬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번 학기에 자료구조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파이썬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 때 배운 건 조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파이썬의 특징과 장점, 여러 문법을 배웠고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인 모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과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re모듈은 특정 문자열의 탐색하여 주어진 패턴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이 모듈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re모듈을 배웠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것도 있었지만 역시 프로그래밍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해봐야 머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습 시간에 파이썬을 설치하여 직접 코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 어떤 기능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과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과제를 잘 해결하였지만 아직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가 미숙하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선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일본의 서비스

외국에서 비춰지는 일본인은 친절하고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서비스에 대해 배우고나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가게를 가나 점원들은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제공했고 쉬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가장 쉬운 예인데 한국의 편의점은 직영점이나 규모가 큰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쉬거나 자기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휴식시간이 따로 있고 근무시간에는 일어서 있어야 하며 알바라고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고객을 접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서비스를 얘기로만 들었지 연수를 통해 자세하게 배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비스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최소한의 요구는 무조건 넘어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기준과 그에 대한 레벨을 설정합니다. 기준은 기업,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설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레벨을 정해놓고 최소한의 요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기준에 자신이 있는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넘어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가져오라고 내세운다고도 합니다. 품질하면 일본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연수를 받기 전에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도 힘든데 일본어로 발표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발표를 하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두려웠습니다. OJT의 최종 과제는 OJT에서 배운 점,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10년 뒤의 자신을 PPT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PPT를 만든 것도 익숙치 않아 밤을 새가며 만들었고 발표에 쓸 스크립트도 겨우 만들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었고 다른 연수생의 발표를 들으며 어떠한 점을 빼먹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시간은 다 되어 아쉬웠습니다. 발표가 겨우 끝나고 야스다씨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것, 말할 때 강약을 조절하며 고객들의 시선을 끌 것,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면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등 외적인 면을 신경쓸 것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회사원들은 친절했고 회사 분위기도 화사해서 좋았습니다. 사장님과 잠깐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원래 다이코라는 회사도 딱딱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코IWS는 IT라는 최신 기술을 다루고 모토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꿨다고 합니다. 다른 일본 기업도 점차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인원은 저 포함 4명이었습니다.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고 방 또한 싱글룸으로 4개를 잡아 항공비와 숙박비로 지원금을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통해 서로 소통하다 보니 많이 친해졌습니다. 연수 포함 일주일이란 시간이 정말 짧다고 느껴졌습니다.